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4, 서론과 마태복음 1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4, 서론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인 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 토론합니다. Papias는 Matthew가 먼저 썼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태복음을 현재의 형태로 보면 아마도 70년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음서의 연대를 주장하는 주장은 어느 쪽이든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관해 광범위한 논쟁이 있습니다.

대명령은 마태복음의 절정이자 결론이다. 고대 작품은 때때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요 주제를 요약합니다. 종종 그들은 처음에 그것들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행전 1:8 과 같은 작품에서는 몇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특히 그의 복음서 끝 부분에서 다양한 주제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 명령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러한 주제 중 일부를 조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결론이 실제로 몇 가지 주요 주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위임령에는 타문화 사역, 전도, 기독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세 개의 하위 분사절로 둘러싸인 하나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제 가는 부분이 단순히 전제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대상은 이방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방을 제자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가 한동안 우리에게 준비시켜 왔던 개념인가요? 어디 한번 보자. 복음은 예수님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용서해주세요.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료였습니다.

어쨌든, 그것들 모두가 정확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대의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들만 포함되었습니다. 제발 여자들을 빼겠다는 식으로 나를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그땐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고대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만 포함되어 있지만 마태는 여자 네 명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 라합, 룯, 그리고 우리아의 과부는 밋세바였습니다. 글썄, 그들은 어디서 왔나요? 다말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유다를 회개시키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분명히 그 지방의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라합, 여러분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곳에서 그녀를의? 그녀는 여리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맥락 중 하나에 그녀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아간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간은 여리고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가족을 구출하고 동족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기 백성을 배반하고 자기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족은 비밀을 알고 있었으므로 책임을 공유했습니다. 룯, 음, 우리는 그녀가 룯기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다.

그 여자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10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였으므로 들어오기를 환영했다고 말합니다(룯 1:16). 그리고 마지막으로 밋세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밋세바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아내라 불리며 그 아내였던 그녀는 우리아의 과부 곧 헛 사람 우리야라 하였느니라.

밋세바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에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녀는 헛 족속의 가족과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명의 여성은 모두 이방인이거나 매우 강한 이방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다윗 왕의 세 조상은 모두 이러한 이방인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족보의 목적은 이스라엘 조상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왕족의 조상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글쎄, 당신은 마태복음 2장에서 세 그룹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 이들 중 일부를 더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방인 또는 모든 나라에 대한 주제를 추적하는 것뿐입니다. 글쎄요, 1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세 명의 새로운 인물이나 인물 그룹은 페르시아 왕,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서 나온 동방박사입니다. 비록 그는 태어날 때 에돔 사람, 이두매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일찍이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했고, 아마도 그 시대의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과 비슷했을 서기관들과 귀족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글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점성가들의 형벌은 죽음이었지만 그들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글썄, 그것은 동방 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어떤 왕이 남자 아이들을 죽였나요?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왕을 숭배하러 오는 외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왕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3장과 4장에도 이 주제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4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주하실 때 이방인의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로마 백부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로마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인종적으로 시리아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섬겼으므로 이 이야기에서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동방에서 박사들처럼, 서쪽에서 로마인들처럼 오리라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된 잔치에 와서 앓을 것이다. 더욱이, 8장에서 예수께서 이방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곳은 주로 이방인의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10장, 예수님께서서는 집이나 마을을 떠날 때, 제자들을 갈릴리 전역으로 보내 전도하고 병을 고치실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리십시오. 글썄,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성지로 돌아가거나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곳에 올 때 때때로 행하는 일은 그들의 발에 묻은 더러운 먼지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마을들을 마치 이교도인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쉽고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11장에서는 심판 날에 두로 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너에게 행한 모든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12장에서 예수님은 니느웨와 세바가 자기 백성보다 심판 날을 더 잘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지식과 진리에 대한 더 많은 노출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더 많은 곳에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종종 이전에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많은 기적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녀는 그리스인으로 알려진 시로 페니키아 여성입니다. 글썄, 그리스인들은 시로 - 페니키아 의 지배 시민 계급이었습니다.

시로 페니키아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변 지역에 있던 리보페니키아와 달리 북쪽의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는 왜 그녀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이 지역으로 올라왔느니라. 그러므로 그녀는 가나안 사람의 유형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두 명의 가나안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다말과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당시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만큼 미워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이야기에 넣는 것은 그를 요점으로 이끈다. 뭐,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 입에서 빵을 빼앗아온 엘리트 계층의 일원입니다.

시로 -페니키아 의 지배 시민계급이었습니다 . 또한 그녀는 시골에 의존하고 있던 도시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엘리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께 청원하는 자리로 나아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인정해야 하며, 그가 정당한 왕이심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6장,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곳은 주술과 이교 숭배로 유명한 이교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그곳의 신인 판(Pan)의 동굴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Panias)라고 불렀지만, 황제와 빌립을 기리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Caesarea Philipp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 너희는 나를 누구 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실제로는 표적이 아닌 많은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왕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25장에서는 나라들이 예수의 대리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형제자매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너희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도 예수님은 무덤

속의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마실 것을 주었는지 등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매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면 나도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들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자, 즉 대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좋은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약속된 마지막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형대입니다. 마가는 백부장을 언급하고, 마태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 곳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관통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주제가 절정에 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가서 세례도 주더군요.

이것은 세례에 관한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상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행위로 3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회개의 세례에 비추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씻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씻음, 관혼상제의 씻음은 이미 그렇게 이해된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씻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의미하는 이 단번의 씻음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에게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글쎄요, 그 메시지는 복음 전체에 걸쳐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세레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4장 17절의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10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느니라. 하지만 이후 변화가 생겼다.

변화는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점은 이제 우리가 천국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세레 요한이 행한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세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와 관련된 좀 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왕의 성격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봅니다.

그분은 질병과 영과 폭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참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자주 사용하는 이름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처럼 성령을 별개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하나님의 한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확실히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성령 사이에서 예수를 아들로 부르는 것은 예수를 신성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편재하십니다.

사실, 후기 랍비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콤(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도 준비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토라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쉼키나가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고대 유대인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저는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끝 부분과 사도행전 시작 부분의 사명에서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그들이 나가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함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는 5개의 담론 섹션, 즉 주요 담론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도 가르침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 주요 담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왕국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왕국 선포의 모델이다. 13장은 왕국의 비유, 즉 왕국의 일곱 또는 여덟 가지 비유를 제시하며, 왕국의 현재적 측면, 즉 왕국이 떡 속에 숨겨진 겨자씨나 누룩처럼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8장은 왕국 안의 관계를 다룬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미래의 왕국과 종교 제도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23을 24부터 25까지와 별개로 보겠지만, 제가 열거한 다섯 개의 담화 부분은 각각 다음 단어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을 닫는 공식 이 있습니다. 그리고 23 가지 종류 가 24가지와 25가지로 변합니다.

하지만 6개의 담화 섹션을 만들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종종 유대인들은 토라에 기초하여 사물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편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잠언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미쉬나 아봇(Mishnah Abot)의 초기 형태, 음, 미쉬나 아봇(Mishnah Abot)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초기 형태는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경의 다섯 부분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 섹션을 보고 싶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약만 했을 뿐이고, 아직 마태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도라는 주제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제자를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나가서 제자를 삼을 다른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배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직업 안정보다 우선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실제로 가장 가난한 유급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농민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낚시가 어떤 면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주거 안전보다 뛰어나신 것을 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어선의 선미 외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는 2장에서 볼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난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거 보안 위에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나를 따르고 싶다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재정적 안정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9:21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정적 안정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회적 의무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들이 가진 가장 큰 의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무의 가장 큰 표현은, 특히 장남의 경우, 아버지를 묻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자신이 우선시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 전통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된 역할을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남은 생애 동안 마을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생명 그 자체보다 뛰어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거기로 가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글쎄,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들리나요?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는 절대적인 표준이지만 우아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경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모음뿐만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이야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방관자를 징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서 목을 매었지만 인접한 페리코프나 문단, 즉 다음 문단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울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의 선구자인 사람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사람들이 밤에 깨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그 위에 누워 자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말이죠. 원래는 무덤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배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과의 관계를 마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백성으로 만드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이 동일한 제자들은 결국 모든 나라에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나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우리를 다른 것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서문의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자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산상수훈에 앞서 마태복음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소개합니다. 전기는 종종 중요한 조상이 있을 때 대상의 조상을 칭찬하거나 대상의 양육을 칭찬하거나 나중에 위대함을 가장하기 위해 대상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중요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글쎄요, 마태와 누가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배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족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대개 조상을 잘 추적했습니다. 7세대 전의 조상은 이집트의 일부 마을에서 귀하의 과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추적할 것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조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유대인이고 당신의 조상이 제사장이었다면, 그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왕족의 후손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추적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존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예수의 친척들은 왕족이라는 이유로 황제 앞에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혈통입니다.

요셉을 통한 그의 공식적인 왕족 혈통은 마리아를 통한 그의 유전적 혈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입양은 왕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왕조인 홀리오-클라우디아 왕조의 여러 왕, 로마의 다양한 황제 중에서 실제로 이전 황제의 탄생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대 황제의 양자로 양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요셉의 손에서 자라난 예수는 그 가계의 상속자가 됩니다.

어쩌면 메리도 가계의 후계자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문자 그대로 예수의 왕족 조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적 유산에 대해 몇 가지 영적인 점을 제시하고 싶어합니다.

미드라쉬 단어 연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유대인 상황에서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가는 이것이 단지 오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쇄상의 실수, 철자 오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1장 10절에는 예수께서 불과 2년밖에 살지 못한 악한 왕 암몬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암몬의 한 글자를 아모스로 바꾸는 것은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는 이름이 종종 s로 끝나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 한 글자를 덧붙이는데, 이는 영어로 두 글자로 나오는데, 아사 왕에게는 헬라어 한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쁜 왕이 아니었던 아사가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8절에서 그의 이름에 한 글자를 더하여 아삽이 됩니다. 그러면 아삽은 누구였습니까? 아삽은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상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선지자와 시편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제 족보의 기능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때때로 시대 사이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아들인 마태 창세기로 끝나는 대략 1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략 세 아들로 끝나는 10세대가 있는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 서로 다른 시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모든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족보는 종종 몇 세대에 걸쳐 생략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대해 마태와 누가를 비교함으로써 마태가 몇 세대를 건너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의 족보를 역대하와 비교함으로써 마태가 몇 세대를 건너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대략 14세대, 저기서 대략 14세대로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포로 시대,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시대까지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간격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에 중대한 사건을 겪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 말 그대로 비블로스 창세기(geneseos),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이것은 그리스어 번역에서 따온 것인데, 그리스어로 글을 쓴다면 당연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5.1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따온 것인데, 실제로 창세기는 그리스어 제목을 따라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bereshit 이지만, 영어에서는 어차피 Genesis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창세기 책. 자, 보통 창세기에 아담의 세대나 노아의 세대처럼 이런 공식이나 비슷한 공식이 나올 때, 뒤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그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자신의 배경과 유산을 아담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분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후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그의 조상들을 나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조상들까지도 하느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점으로 이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정점을 이루는 이 모든 역사의 이유, 궁극적인 이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기 계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히 2장과 4장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역사 사이의 연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이 기대되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의 시편과 사해 두루마리 등과 같은 고대 유대 자료의 다른 곳에서도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족보에는 종종 남자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이스라엘의 네 명의 여주인공 또는 적어도 한 번에 가질 수 있었던 세 사람, 즉 사라, 레베카, 레아, 라헬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문학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네 명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 네 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태복음에는 창세기 38장의 다말, 여호수아 2장과 6장의 라합, 룻기의 룻,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우리아의 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가나안 사람, 룻은 모압 여인, 밋세바는 헷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외적인 계보입니다. 대부분의 족보는 이스라엘인이거나 레위인의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신 마태는 예수님의 혼합된 유산, 즉 세 이방인과 한 이방인의 과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방인 선교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나중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가 처음부터 청중을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족보 다음에 요셉의 경건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배경을 더 이야기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고대 전기 작가들은 자신의 양육, 부모 또는 조상의 경건함과 주인공 탄생의 특이한 특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탄생과 연관되지 않는 예수 탄생의 특히 특이한 특징,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에 대한 유사점을 인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유사점은 실제로 매우 형편없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에는 유대인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방인, 그리스인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 그리스 신들이 인간을 임신시키고 젊은 여성이나 소녀들을 강간하거나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물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만드실 뿐입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더 가까운 것은 구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적적인 탄생,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은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과 닫혀 있던 자궁이 열린 후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약의 천사들이 예언한 탄생, 이스마엘, 삼손도 있지만 거기에는 처녀 탄생을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신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처녀 탄생을 했다는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후에 꾸며낸 것들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 이야기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구절은 등장인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대부분이 옳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John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왕국이 두 단계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대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예수가 약속된 분이신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존은 대부분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라고 불리며, 여러분은 그에게서 대부분 올바른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요셉에 관해 뭔가를 말해 줍니다.

마태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려 주지만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에서 요셉의 성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자신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헌신, 연민과 자비, 헌신, 통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단지 c를 만들기 위해 때때로 가장 좋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자제여야 하고 헌신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암시적인 결혼 서약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 충실도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간음 혐의로 마리아와 이혼한 것은 그와 그의 문화가 결혼의 충실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 간음의 경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법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가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으면 레노 퀴니움(leno quinium), 즉 아내의 포주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문화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간음은 매우 심각한 결혼 위반이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간음의 원인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단지 암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이 구절의 좀 더 명확하고 명확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대에 약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가정하는 것처럼 요셉도 아마도 마리아를 몰랐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약혼이나 방화는 대개 1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혼 기간에는 갈릴리에서 보호자 외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지만 갈릴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이혼이나 둘 중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가 언약을 어겼다고 생각하여 그녀와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지 약혼일지라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서구의 참여 그 이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 전 성관계가 금지되었습니다. 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명기 22장에서 그 사람이 처형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실제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증거는 이 기간 동안 그녀가 많은 수치와 굴욕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처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와 공개적으로 이혼하고 그 여자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준 지참금을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화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그리스 문화에서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지참금을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활비를 줄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하면 남편이 지참금을 갚아야 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제도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 문화에서는 남자 아기를 버리는 것보다 여자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아기를 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될 사람이 시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키워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를 존경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권에는 그런 종류의 신부 가격이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법적으로 결혼하려면 신부값을 내야 했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가 결혼 생활에 가져온 돈은 그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간음죄를 지었다면 그는 그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아버지에게 지불한 신부값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자신의 수치심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거 봐요.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나 그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되는 비공개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에게 git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git은 이혼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덜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렇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의 일부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녀가 실제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헌신이나 순종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요셉은 평생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임신시킨 것처럼 그녀의 수치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명예와 수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일부 후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셉은 아마도 결혼을 했고 그의 첫 아내가 죽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의 다른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우리 학자 중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단지 후기 전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은 실제로 야고보의 원시복음 이전에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원하는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단지 평균적인 확률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의 첫 번째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18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인데, 이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일반적인 결혼 연령이었습니다.

메리는 아마도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갈릴리와 유대에서는 소녀들이 사춘기에 이르자마자 결혼 가능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이 있는 그리스 문화와는 달리 마리아는 아마도 그보다 훨씬 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청년입니다. 그에게는 인생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는데, 이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꿈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는 꿈을 꾸는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방법으로 상징적인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나 천사가 당신에게 말할 때는 그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 나쁜 음식을 먹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제력. 그들은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성교를 금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대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다른 많은 신랑들과 같았더라면,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직 집을 짓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일종의 요셉의 부모님 집에 있는 일종의 임시 방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45분 동안만 함께 놔두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들은 서구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우리의 동물적 열정은 너무 강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자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만약 그들이 결혼식 날 밤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처녀 잉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광을 위한 동정녀 탄생이 되도록 기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마태의 취급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임마누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의 이사야 교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징조를 구하라 문맥은 유다 왕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던 다른 두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국, 더 북동쪽에는 다마스쿠스, 즉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을 앗수르 왕과 연합하여 연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왕국들은 앗수르 왕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 두 왕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 된 것은 아하스가 표징을 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예정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원전 700년대 당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였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아는 시간에 요구르트와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이 사는 땅은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다른 왕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생애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아이의 탄생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 판에 기록하라 노략하는 자가 빠르며 노략하는 자가 빠르며 평강이 지나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여선지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아내일 것이고 그녀가 임신했을 것이며 그녀도 예언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들어간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마허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Swift는 전리품이고 빠른 것은 먹이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소리칠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앓수르 왕 앞에 사로잡혀 갈 것임이라.

그 말이 7장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들리나요? 따라서 아하스에게 보내는 표징은 이사야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매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러나 이사야서 8장 18절을 계속 읽으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이스라엘에게 표적과 기사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표지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판을 보고 '아, 정말 사랑스러운 간판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내 침실에도 그런 간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표시에 감탄합니다. 기호의 요점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무언가에 집중시킵니다. 이사야와 그 아들들은 모든 사람이 그 아들들을 주목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그들은 다른 것, 그들 자신 너머의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안에서도 그것은 그 이상으로 임마누엘, 진실로 하나님이 더 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더 큰 성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다윗의 왕좌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 7:14을 인용할 때 정말 전체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인용했습니까? 나는 마태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장 뒤인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는 이사야 9장에서 이방인의 갈릴리의 빛에 대해 말할 때 바로 그 문맥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몇 장 후에도 같은 맥락이 마태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나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마태가 인용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가끔 하는 일은, 마태복음을 구약성서로, 또는 우리는 '오, 마태복음은 문맥을 읽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는 우리가 문맥을 충분히 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1장과 23절,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매튜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중 일부가 성경을 다루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 해석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통역자들을 읽어보면 그는 그들 중 최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의 성품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사람이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성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또 다른 등장 인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등장 인물은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4, 서론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